

세월호 인양 후 나흘이면 목포신항 온다

잭킹바지선 고정 3일

거치까지는 최대 2주

최대 변수는 날씨

세월호가 침몰 3년만에 해저면에서 1m 가량 떠올랐다.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과 인양업체 상하이셀비지는 22일 세월호를 인양할 2척의 잭킹바지선의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시험인양을 시도했다. 이날 밤 8시 현재는 기울어진 선체의 균형잡기 등 정밀 조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 일정과 기상 상

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술적으로 본 인양에 착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할 것"이라며 "본인양을 추진할 경우 작업이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본인양의 최대 변수는 날씨다. 바다는 육상보다도 기상 변화가 훨씬 빨라 날씨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인양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파고 1m, 풍속 10%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인양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세월호 선체는 6~8시간 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10~11시간이면 완전히 부상한다. 이후 세월호를 잭킹바지선에 고정시키

는 작업에 0.5일, 잭킹바지선의 묘박줄을 회수하는데 0.5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km 밖에서 대기 중인 반잠수식 선박으로 세월호를 옮겨 신계 된다. 이동에 0.5일, 반잠수선 부상과 세월호 고정 작업에 3일이 걸린다. 목포신항으로 세월호 선체를 이동시키는 작업도 많은 시간을 요한다. 반잠수선이 약 87km 떨어진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이동하는데 1일, 세월호 선체를 육상에 올리기 위한 준비 3일, 육상 거치에 1일 등 5일이 소요된다. 세월호 최초 인양부터 시작해 운반, 반잠수식 선박 부상, 목포신항에 최종적으로 거치하는 데 12~13일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여기에 작업현장의 돌발변수 발생 등을 대비해 예비일까지 넣으면 일정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처된 이후에는 세월호의 객실 구역을 분리해 세운 뒤, 선체 정리를 통해 실종자 9명의 수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에는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양 유류오염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16척이 작업해역과 이동경로를 3중으로 에워싸고 있는 상태. 해군과 해경의 경비선 4척도 주변 해역 경비를 실시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조경규 환경부 장관·윤정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퍼포먼스의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광주전남사건지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 고심 깊은 김수남 검찰총장

7시간 초저 검토 후 22일 아침 귀가

영장 청구 이변주 후반 결단 가능성

13개 혐의에 새 범죄사실 추가 검토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기록과 벌리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미 적용한 13개 혐의 외에 죄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범죄사실을 덧붙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검찰 인파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총 책임자'나 다음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공범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이고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가지 혐의도 불구속 기소되기에 지나치게 무겁다는 논리다. 다만 김수남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고집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다. 영장이 청구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며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기록을 토대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경청한 뒤 여러 요인

을 숙고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혐의 추가와 관련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긴밀히 들여다보는 부분은 삼성 이의 다른 대기업과 연관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 포즈제단에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달 전인 작년 2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제단에 70

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바 있다.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박 2일'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넘게 자신의 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여러 곳의 수정을 검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1일 밤 11시40분부터 22일 오전 6시54분까지 잠장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검토했다. 이에 따라 귀가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뤄졌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세계적 미디어그룹과 손잡고

신개념 디지털 공간 콘텐츠 개발 나선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국제적인 미디어그룹과 신개념 디지털 공간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과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그룹인 폭스 네트워크스 코리아, (주)엘와이디 디지털스페이스측은 21일 문화전당에서 멀티미디어 공간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전당은 협약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공간체험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창작물 시연과 운영을 맡는다. 폭스네트워그룹 코리아는 공간체험 콘텐츠 개발이 되는 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아시아 지역 독점 배급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자료 등 멀티미디어 등이다. 엘와이디 디지털스페이스는 문화전당과 협업으로

멀티미디어 공간체험 콘텐츠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고 최종 결과물을 공동 제작한다. 이들 기관은 오는 5월 협력 사업에 착수한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협약을 계기로 문화전당은 문화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대중적 콘텐츠 개발 사업을 더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미디어사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스네트워그룹 코리아는 콘텐츠 개발·제작 역량과 350여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주)엘와이디 디지털스페이스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기술 제작 역량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 콘텐츠 그룹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절충점 못 찾아

광주시·전남도의회 특위 관계자 첫 간담회서 설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특위 관계자들이 22일 처음 대면했다. 그러나 시안이 워낙 민감한 탓에 쉽게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다. 광주시의회 군 공항 이전 특별위원회와 전남도의회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22일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논의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수십 년간 군 공항 소음으로 광주시민이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고 "광주와 전남은 '한뿌리'"라며 대등적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군 공항을 떠난아야 할 형국에 놓인 전남도의원들은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전남을 이전지로 사실상 결정하는 등 광주시가 '일방통행식' 행정을 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이전 후보지를 전남에서 찾지 말고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 모색해

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시·도 의원 간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양 시·도 의원들은 조만간 국방부를 방문해 군 공항 이전 절충점과 법 적용 관련 내용 등을 점검하기로 하고 1시간여 만에 첫 대면을 마쳤다. 광주시는 오는 5월께 군 공항 이전 검토 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면 이전 후보지를 3~4곳으로 좁힐 방침이지만 대상 지역의 반발이 나올 경우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군 공항 이전 사업 내용과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전 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2022년까지 5조7천억원을 들여 새 공항을 건설해 광주 군공항을 옮기고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외국인 아내 1위 베트남 ... 외국 남편 1위는 중국

지난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는 베트남 출신이, 외국인 남편은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의 시도별 혼인을 보면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2만600건으로 1년 전보다 3.2% 감소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은 1.0% 증가한 1만4800건이었지만 외국

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의 결혼이 5800건으로 12.6% 감소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7.3%로 0.3% 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6.3%), 중국(28.3%), 필리핀(5.8%)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중국이 25.4%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 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6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1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현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농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치평동 상가 임대

- 상무나이트 옆 스카이라운지
- 10층 795㎡(250평)
- 권리금 없음
- 음식점 / 병원 / PC방 적합
- 보증금 1억 월25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불로초교 바로옆
- 매매 4억 2000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보증금400만원 / 월47만원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300만원

문의 010-9203-6161